

수업 단위		민요로 즐기는 제주어(1)			차시	8/17차시	
일시 및 대상학급		고등학교 전학년	수준별	공통	장 소	각 학교별 활동 교실	
수업목표		■ 제주민요 사설을 통해 제주어를 익히고, 제주어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 제주민요 감상활동을 통해 제주인의 정서를 체득할 수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		■ 이론적 학습보다는 제주민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 활동을 전개한다. ■ 제주민요 사설을 정리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제주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주민요를 스스로 찾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한다.					
수업 단계	전개 과정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간 및 유의점	
도입	도입	전시학습 확인 수업안내 학습목표 학습활동	■ 전시 학습 확인 ■ 수업안내 ■ 학습목표 제시 ■ 학습활동 1: 제주민요 분류하기 *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민요를 기능에 따라 분류해보자. -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 학습활동 2: 대표적인 민요 알아보기 1. 대표적인 노동요는? - 해녀노젓는소리, 밭밟는소리, 밭매는소리, 마당질소리, 땃돌질소리, 방아찼는소리, 풀무질소리 등 2. 대표적인 의식요는? - 상여소리, 진토굿파는소리, 달구소리 등 3. 대표적인 유희요는? - 오돌또기, 이야흥, 너녕나녕, 서우젯소리 등 ■ 학습활동 3: 해녀노젓는소리 감상, 제주어 의미 파악하기 - 노래 사설 일부를 표준어로 바꿔본다. - 내용을 파악하고, 느낌을 발표한다. - 제주어의 특징 파악해본다.			7분	PPT
전개	전개					36분	PPT
정리	형성평가 정리	형성평가 정리	■ 형성평가 * 위 노래가 지닌 한국 민요사적 의의는? - 제주해녀에 의해서만 유일하게 전승되는 어업노동요 ■ 정리 ■ 과제 부여 ☞ 밭밟는소리, 마당질소리 조사하기			7분	PPT

활동 1. 민요는 기능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가?

민요의 분류: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활동 2. 제주에서 전승되는 민요를 기능에 따라 분류해보자.

* 노래명칭은 표준어로 된 노래명을 앞서쓰고, 제주에서 불리는 현지 노래명은 ()속에 쓴다.

예: 땃돌질하는소리(ㄹ레ㄹ는소리)

가. (노동요)

- 해너노젓는소리(좁너네젓는소리), 밭밟는소리(밧볼리는소리), 밭매는소리(검질매는소리: 사테소리), 마당질소리(도깨질소리), 땃돌질하는소리(ㄹ레ㄹ는소리), 방아쥘는소리(방에질소리), 풀무질하는소리(불미소리) 등

나. (의식요)

- 장례의식요: 상여소리(행상소리), 진토긋파는소리, 달구소리(달구질소리), 꽃염불소리

다. (유희요)

- 성인 가창유희요: 오돌또기, 이야흥, 너녕나녕, 서우젯소리, 용천검, 신목사노래 등
- 아동 놀이유희요: 원님놀이, 매미잡는소리, 방아깨비부리는소리, 사람놀리는소리, 숨바꼭질하는소리 등

활동 3. 다음 해너노젓는소리의 영상을 보고 아래의 활동을 해보자.

해너노젓는소리

선소리: 안도인, 훗소리: 김영자, 강등자

이여싸나 이여싸나 이여싸나 이여싸나
 밋밋한 물줄에1) 해풍만 치고요
 허적소리2) 나는 것은 연락선만 소리로구나
 처라 처라배겨 혼목을 짓엉3) 남을 준덜 허리지덕 배지덕 말라
 놉의나고대 애기랑 배영 허리야지덕 배지덕 말라
 우리 어멍 날날 적에 가시나무 몽고지에4)
 손에꿇이5) 백이라고6) 날낫던가 이여싸나 이여싸나
 요 밴드레7) 끊어지면 부산항구 아사이노가8) 없을소냐
 요 네착이9) 부러지면 대마도산천 곶은 남이 없을소냐
 ㄹ를ㄹ를10) 신살르멍11) 젓어보라
 기신내영12) 밧버둥 치건 ㄹ를 지라 ㄹ를 지라 이여차 어기여차
 간다더니 왜 왔더냐 울고 갈길 왜 왔더냐

요 금전이13) 아니라면 울산강산이 어딘줄 알았14)
 부모형제 떨어두꼭 어린 자식 정들려두언
 새벽밥 흐명 불습아보라15) 처라처라 처라 처라베겨
 혼목을 짓엉 놔을 준덜 믈을 주랴
 만리나 장상16) 벌은 닳을 줌줍이 사려놓고17)
 어기야차 소리에 배만 올라 가는구나
 이어싸나 이어싸나

* 영상복원 제주민요, 기획/ 제주도, 제작 / KCTV제주방송, 6쪽.

1. 이 노래에 나온 다음 제주어를 표준어로 바꿔 표현해보자.

* 1) 밋밋한 물줄에: **밋밋한 물줄기에**. 2) 허적소리: **뱃고동소리**. 3) 혼목을 짓엉: **한 바탕 저어서**. 4) 몽고지에: **노손에**.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노 위쪽 끝머리에 마련된 손잡이**. 5) 손에깡이: **손에 못이**. 6) 백이라고: **박히라고**. 7) 요벤드레: **이 벤드레**, **벤드레는 노를 저을 수 있게 뱃명예와 노손을 묶어놓은 밧줄**. 8) 아사이노가: **삼으로 꼰 밧줄이**, **아사이는 일본어**, 9)요네착이: **요 노착이**, **노착은 노의 윗부분**. 10) 믈를믈를: **마루마루**, **길게 늘어져 다가오는 파도의 등성이**, **고비고비**. 11) 신살르명: **신명을 내면서**. 12) 기신내영: **기력과 정신을 내어**. 13) 요금전이: **이 돈이**. 14) 어딘줄알았: **어디인 줄 알아서**. 15) 불습아보라: **불 때어 보라**. 16) 만리나장상: **먼 곳으로**. 17) 줌줍이 사려놓고: **가지런히 사려놓고**.

2. 다음 사설을 표준어로 고쳐보자.

제주어	우리 어멍 낄낄 적에 가시나무 몽고지에 손에 깡이 백이라고 날났던가 이어싸나 이어싸나 요 벤드레 끊어지면 부산항구 아사이노가 없을소냐 요 네착이 부러지면 대마도산천 곶은 남이 없을소냐 믈를믈를 신살르명 짓어보라
표준어	우리 어머니 날 낳을 때에 가시나무 노손에 손에 못이 박히라고 나를 낳았는가? 이 노끈이 끊어지면 부산항구 아사노(밧줄)가 없겠는가? 이 노착이 부러지면 대마도 산속에 곶은 나무가 없겠는가? 고비고비 신명내면서 저어보라
핵심내용	노 젓는 작업의 고통과 신명나는 노 젓기 권유

3. 다음 해녀작업과 관련된 어휘의 뜻을 조사해보자.

제주어	표준어, 또는 뜻풀이
몽고지	노손,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노 위쪽 끝에 마련된 손잡이
켁이	못, 손바닥에 웅이가 생김
벤드레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배 멩에와 노손을 묶어 놓은 밧줄
네착	노의 상책, 상책은 노의 윗부분
테왁	해녀들이 작업하기 위해 해엄처 나갈 때 물 위에 띄워 가슴에 얹고 그 부력을 이용하여 해엄치기 편리하도록 하는 데 쓰이는 기구. 박을 말려 씨통을 빼어내고 노끈을 얹어 만든 게 원래의 것이고, 이를 두렁박이라고도 했다. 근래에는 그 재료가 많이 달라졌다. 이 테왁 밑에는 채취한 해산물을 넣어두는 ‘망사리’(망아리, 망시리)가 달려있다.
빗창	해녀들이 전복을 따는 데 쓰이는 나부죽하고 길쭉한 쇠붙이

4. 아래 어휘의 원형과 그 뜻을 알아보자.

- * 심고: 심다(잡다, 붙잡다), 나무를 심다가 아님. / * 𐏓랏건마는: 𐏓다, 𐏓리다(꺾리다)
- * 궂댕: 궂다(나쁘다) / * 숨아보라: 숨다(삶다)

5. 해녀 노젓는 소리를 통해 알 수 있는 제주여성들의 삶에 대해 간단히 말해보자.

- 제주여성들은 바다를 또 하나의 밭으로 삼아 손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왔다.
- 제주도 해안에서만 아니라 남해안, 동해안, 심지어 중국, 러시아, 대마도까지 진출해서 물질을 할 정도로 강인한 삶을 살아왔다.

<심화학습 자료>

해녀노젓는소리

구좌읍 동김녕리/ 앞소리: 김경성(60세), 뒷소리: 여럿

(뒷소리꾼들은 앞소리를 반복)
이여싸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요 넬 젓영1) 어딜 가리 진도바당2) 혼골로 가세
혼착 손엔 테왁 심고3) 혼착 손엔 빗창 심어4)
한 질 두 질 들어간 보난 저성도가5) 분명히다 히
이어도사나 처라 처라
한 목 지영 어서나 가자 이어도사나
우리 어멍 날 날 적에 가시나무 몽고지에6)

손에 켜이7) 박으라고 날 낳던가
 이어도사나 헛 처라 처라
 한적 젓영8) 앞을 사자 이어도사나
 가민 가고 말면 말지 초신을 신고 시집을 가리 헛
 이어도사나 처라 처라 잘도 한다 이어도사나
 요 네 상척9) 부러지면 선흘곶디10) 곧은 남이 없을소나
 요내 홀목 뿌러지면 부산항구 철도병원 업을소나
 요 벤드레11) 끊어지면 부산항구 남충천12)이 없일소나
 이어도사나 처라 처라 넘어야간다 이어도사나
 요 물 아래 고동생복13) 깔렸건마는 성세 나빠14) 문 하러라 히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처라 처라 넘어야간다
 우리 성제 젓는 노는 노도 맞고 등도 맞고
 백만사가 다 맞아 간다 이어도사나 헛
 처라 처라 넘어나간다 우리 배에 선두사공
 뱃머럭만 돌려 놓소 젓걸이로 우경 가자 이어도사나 헛
 처라 처라 잘도나 간다 이어도사나 이어사
 요 네 곳댕15) 타령 말소 한서중에16) 놀던 네여
 이어도사나 처라 처라 넘어나간다
 요 늦둥아17) 저 늦둥아 솜통18)을 먹었느냐
 지름통을 먹었느냐 둥긔 둥긔 잘 올라오네 히
 이어도사나 처라 처라

* MBC,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68-69쪽.

* 한국민요대전,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http://www.urisori.co.kr/main.html>)

1)요 넬 젓영: 요 노를 저어서. 2)진도바당: 진도바다. 3)테왁 심고: '테왁'을 잡고. 테왁이란 잠녀들이 작업할 때 물에 띄우는 도구. 4)빗창 심어: '빗창' 잡고. 빗창이란 바다밑에서 전복을 캐는 데 쓰는 도구. 5)저승도가: 저승길이. 6)몽고지: 노의 손잡이. 7)켄이: 손바닥이 굳어 못이 박힌 것. 8)한적 젓영: 어서 저어서. 9)요 네 상척: 요 노의 상척, '상척'이란 노의 상반부. 10)선흘곶디: 선흘곶에. 선흘곶은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숲 이름. 11)벤드레: 배 명에와 노를 묶어 놓은 밧줄. 12)남충천: 삼으로 끈 노끈. 13)고동생복: 소라고동과 생복(生鰭). 14)성세 나빠: 형세가 나빠서. 15)요 네 곳댕: 요 노가 나쁘다고. 16)한서중에: (말뚝 모름) 17)요 늦둥아: 요 놀덩이야. '놀'은 바다의 큰 물결. 18)솜통: 인삼통

◇ 제주도의 잠녀(해녀)들이 잠수질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어장으로 노를 저어가면서 하는 소리. 노젓는 동작에 맞게 노래가 역동적이다. 위의 해녀노젓는소리는 두 팀으로 나누어 노를 저어갈 때 부르는 전형적인 노래로, 앞소리꾼이 하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 한다. 목청 높이 '처라 처라'하는 부분은 노꾼들이 힘을 북돋우기 위해 한쪽 발로 배의 갑판을 내지르면서 하는 소리다. 현재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전승 보존되고 있다.